

영광군, 4천500억 역점·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장세일 군수 국회 예결·상임위 등 방문
수소 특화단지·돌봄 클러스터 조성 등
국토부 장관에 서해안 철도 건설 건의

영광군이 지역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는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장 군수는 국회에서 서삼석(호남발전특별위

원회 위원장·최고위원)의원과 이개호(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조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군수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며 4천4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영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특화단지 조성 ▲영광 RE100국가산단 지정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건의하며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 지역현안 숙원사업인 ▲노인돌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455억원) ▲영광 염산지구 농촌융수 이용체계 재편사업(105억원) ▲CLEAN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150억원) ▲국도23호선(영광~함평신광) 도로 확포장(1천344억원)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2천435억원)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국도23호선(영광~함평신광) 도로 확포장 사업 ▲서해안 철도(군산-목포) 건설 ▲영광·광주 송정 신산업선 건설 사업을 건의했으며,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위험구간 개선과 낙후된 서해



장세일(왼쪽) 영광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조계원 국회의원에게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영광군 제공>

안 경제권의 지역균형 발전, 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국회 방문은 영광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영광군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섬 전체를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중기부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
‘1섬 1뮤지엄·1섬 1정원’ 등 추진
“세계가 찾는 문화예술의 섬 도약”

신안군이 섬 전체를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1천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결합, 섬 전역을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신안형 문화발전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아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69개 개별법)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괄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군은 중기부와 함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고 군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신안군 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지정 받기 위해 준비했다.
특구의 핵심 사업은 ▲세계적 예술가와 협업하는 섬 박물관 건립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1004섬 관광 및 계절별 축제 활성화 ▲1004굴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신안 1004뮤지엄파크 전경. <신안군 제공>

등 신안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다.
이를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섬 1뮤지엄’과 ‘1섬 1정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섬의 매력을 선보이며, 신안의 섬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의 섬 자체가 박물관이자 정원이 되는 모델을 정착 시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었던 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가 찾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는 ‘신안 시금지·대파산업특구, 천일염산업특구’에 이어 3번째 특구가 된다. /신안=양훈 기자

진도군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 ‘박차’

郡·道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MOU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공동 추진

진도군이 전남교육청과 손 잡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전남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행정적 지원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으로 협약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유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군정 방침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전남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희수(오른쪽)진도군수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진도군 제공>

강진군, 예비 부모 위한 ‘출산 교실’ 운영

보건소 3층서 오는 12-26일 3회 진행
임신·출산 정보, 요가 등 프로그램 다채

강진군보건소가 건강한 출산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등록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 교실을 운영한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임부 출산 교실”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보건소 3층 대회의실과 건강증진실에서 진

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임신부와 배우자, 가족 등 30명이다.
프로그램은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가족의 역할 이해 ▲임산부 요가 교실 ▲캘리그래피 수유 등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임신·출산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요가 강사가 함께해 체형 관리와 심신 안정을 돕는다.
특히 수유 등 만들기 체험에서는 부모가 태어날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캘리그래피로 표현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임신부는 강진군보건소 보건사업과(061-430-5216)로 문의하면 된다.
한준호 강진군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예비 부모들의 출산 불안을 덜고 건강한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관련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장복성 前목포시장, 목포·신안·무안 ‘메가시티’ 발표 “서남해안 시대 전남 심장으로 도약 발걸음”

장복성(사진)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목포·신안·무안을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발표했다.
장복성 전 의장은 지난 7일 “목포·신안·무안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이자 전남의 심장으로 도약할 메가시티 탄생의 거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통합만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압도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잃어버린 목포의 영광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침체된 목포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할 중심점을 구축하기 위한 장 전 의장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담대한



약속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 전 의장의 파격적인 ‘임기 불사’ 공약은 이번 통합 추진의 핵심이다.
그는 “새로운 ‘목포·신안·무안 통합시’를 조속히 출범시키기 위해 4년 단임 시장제를 제안하며, 만약 이마저도 부족해 통합을 위해 임기 중 물러나야 한다면 주저 없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전 의장은 “이 약속은 저 장복성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직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와 서남해안 시대의 압도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어촌 신활력 사업 선정...100억 확보

금일 일정·화전항 생활·안전 시설 개선

완도군은 9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금일 관문 권역(일정·화전항)이 선정돼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경제 도약형, 어촌 회복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200개의 어촌·어항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금일 관문 권역은 어촌 회복형으로 4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일정항과 화전항 일대에 취약한 생활·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어민 작업장 조성 등 어항 시설 정비를 통해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돕고, 복지회관·경로당 시설 개선, 어린이 놀이 시설·문화 복지 거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부터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일을 일정항 일대는 어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 발



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모 선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다”면서 “어촌에 활력이 들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열기 확산

연구 기반·산업 연계성 등 최적지 평가
필요·당위성 공감대 확산 캠페인 전개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나주시민추진위)’는 지난 6일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 일원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공동위원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진위 집행위원장, 추진위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총사업비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바닷물 속 수소 1g으로 석유 8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연구시설이다.
나주시는 이미 핵융합 연구 기반과 부지 안전성, 산업 연계성이 두루 뛰어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될 경우 2050년까지 3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유치와 1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병태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길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시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유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반드시 나주에 유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